

연중 제22주일(가해)복음환호송

김재연 루치아

알 렐 루 - - 야, 알 렐 루 - 야, 알 렐 루 - 야, *Fine*

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 지, 저 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 시 어,

D.C.
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 여 주 소 서.